“우리 민화, 그 그림이 그 그림 같다고요? 회화·조형미 탁월한 ‘행복한 충격’인데”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전 여는 김세종 평창아트갤러리 대표

佛·日 등 컬렉션 열 올리는 데 죽은 유물 취급 안타까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삭줍듯 20년간 수 백 점 수집
문화전당 2월 10일까지 70여점 전시…19일 김 대표 강연

그는 거침이 없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모아왔다며,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앞만 바라보며 ‘한우물’을 판 이의 고집도 읽혀졌다. 그를 인터뷰 하려 생각했던 건 서울 예술의 전당 전시 때문이었다. 국내 굴지의 문화공간에서 ‘단 한 사람’의 컬렉션만으로 대형 전시회를 연다는 게 의외였다. 전시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어졌고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그 작품을 만나고 있다.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Fantasia Joseon)’전이다.

김세종(63) 평창아트갤러리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한 날은 전시 개막일이었다.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도슨트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그림을 설명하는 그는 열정적이었다.

오는 2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 대표가 20여년 간 모은 작품 중 엄선한 고사도, 책가도·책거리, 문자도,화조도, 산수도, 까치호랑이 등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민화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구나”하는 마음이 든다. 김 대표는 ‘민화가 주는 행복한 충격’을 관람객들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민화는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만 그 진가를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민화의 상징성이나 도상학적인 부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고, 한 두 작품 보고 나면 민화는 볼 필요가 없는 작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미학적인 부분은 연구가 안돼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 민화는 회화적·조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일본 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민화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극찬했어요.”

김 대표는 민화를 ‘유물의 가치’ 대신, 순수한 회화적·아트적 관점에서 작품을 수집했다고 했다,

“화가 이우환, 김기창, 장욱진 선생 등은 민화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영향을 받아 자신의 그림에 반영시켰습니다. 민화를 수집하며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외면할까 생각했죠. 화려한 궁중화말고 이름 없는 이들이 그린 소박한 작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 민화에는 서구 미술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해학’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해설이 없이도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아, 이게 어떤 걸 그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민화를 상징이나 관념의 관점이 아닌 회화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자신의 수집 철학과 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컬렉션의 맛’(아트북스)을 출간하기도 한 그는 20대 후반부터 수집을 시작했다. ‘수집 인생’의 시작은 난초였다. 이후 조선백자 등을 모았고 그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추사, 겸재, 단원 작품 컬렉션을 했지요. 김환기 작품도 모으구요. 저 역시 민화가 처음부터 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민화의 대중화가 어려운 게 작품에서 회화적 ‘예술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예요. 얼핏 보면 되게 못 그린 것같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정통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그린 그림이라 허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 그린 민화에는 고도의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미학적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메 박물관이 수집하고, 일본에서 수없이 가져간 것이겠죠. 저는 그 틈새에서 이삭줍듯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민화는 한국 19세기 회화사의 중요한 한 장르이자, 전 세계 근대 회화사의 한 장르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북 보령 출신인 그는 10대 때 서울에 올라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배고팠던’ 그를 위로해 준 건 박물관 나들이었다. 20대 초 충무로에 2평 짜리 사무실을 열고 광고기획과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때부터 컬렉션에 나섰다. 하지만 IMF 때 많은 것을 날려 버렸고 2000년, 평생 예술을 즐기며 살자는 생각에 평창아트갤러리를 열어 조금씩 민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10~20점 모아 나이들어 조그마하게 전시하며 살자 싶었죠. 하지만 민화 세계에 들어와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민화는 이미 버려진 유물이더라구요, 분명 살아있는 그림인데 유물로만 연구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대영박물관 등이 민화 컬렉션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만 죽은 유물이 되어 있어요. 저만의 언어로 말하자면 ‘민화는 온 백성이 추구해온 삶과 이상향을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으로, 회화적으로 완성한 장르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매력, 그러니까 휴머니니즘을 보여주는 장르’입니다. 또 서구 현대미술의 추상성과 큐비즘 이외에도 전 세계 아무데도 없는 ‘해학’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민화 중 허접한 작품도 많아요. 하지만 20% 정도는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어느 나라나 시대마다 천재들이 있어요. 민화를 그리던 시절이라고 왜 백남준이 없었겠습니까.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이름 없는 이들이 그렸지만 그림을 보면 그 독창성과 창의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민화의 눈을 떠주게 해준 건 30대 때 수집한 ‘제주도 문자도’였다. 또 일본의 한 갤러리에 전시된 ‘까치 호랑이’를 보고 3년간 소장자를 설득한 후 구입하기도 했다. 그가 애정을 갖고 모아온 ‘까치 호랑이’는 그에게 민화 컬렉션의 자신감을 갖게 해줬고, 갤러리 1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까치 호랑이 전’은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일본의 한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3년간 설득한 끝에 구입한 ‘까치 호랑이’.

“20대 후반에 야나기에 입문하며 미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법, 바른 수집법 등에 대해 늘 배웠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하구요. 호암박물관 등에 숱하게 다니며 나도 저런 작품 한점 가질 수 있을까 늘 흠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유럽에서 민화순회전을 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같네요.”

전당은 19일 오후 2시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민화 수집가 김세종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김 대표는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민화 감상법 등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3주년,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다. 티켓 가격 2000원~5000원. 문의 062-601-40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2월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Fantasia Joseon)’전 ‘제주 문자도’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세종 평창아트갤러리 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사상사로 만나는 베트남
인문학교육연구소 수강생 모집

인문학교육연구소(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156)가 ‘사상사로 만나는 베트남’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월11일부터 4월1일까지 8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하노이 답사도 예정돼 있다.

이론 수업에는 응웬 타이 트의 ‘베트남 사상사’를 번역한 김성범 철학박사가 나선다. 한국철학과 베트남철학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박사는 한라일보 기자를 지내고 베트남 하노이대 초빙교원,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철학원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통일하는 나라의 철학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에 생소한 베트남 사유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근대시기 한국과 베트남에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사유를 비교한다. 전설에서 15세기에 이르는 복잡한 베트남의 사유를 조명한다. 교재로는 ‘베트남 사유의 흐름’(김성범 지음)과 ‘베트남 사상사’를 활용한다. 수강료 6만원(후원회원 4만원·교재비 및 답사비 별도). 문의 070-8862-6063. /백희준 기자 bhj@

놀이로 배우는 진도 강강술래
국립남도국악원 DVD 등

놀이로 ‘진도 강강술래’를 배울 수 있는 영상 교재가 나왔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최근 ‘2018 국악교육콘텐츠개발’ 기획의 하나로 교육용 진도 강강술래 DVD와 학습지도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DVD 자료에는 놀이별·전체 영상이 실리고 학습지도안의 경우 놀이별 영상에 맞춰 사진들이 수록돼 현장교사 교수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악교육콘텐츠개발’은 올해까지 총 교재 5종, 강습지도안 7종, 신규 국악교육과목(국악랩만들기) 1종, 영상물(DVD) 7종을 개발했다. 해당 자료들의 저작자 표시를 하고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유튜브(youtube.com/user/gugak1951)나 홈페이지(jindo.gugak.go.kr) 아카이브를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61-540-4038. /백희준 기자 bhj@